

# 2022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 목 차

2022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C o n t e n t s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1. 개요	2
가. 시장전망	2
나. 주요 경제지표	2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3
가. 높은 COVID-19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경제 회복 기대	3
나.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	4
다. 주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가속화	7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0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0
가. 정치 환경	10
나. 경제 환경	11
다. 산업 환경	15
라. 정책·규제 환경	18
2. 시장분석	23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23
나. 수출	26
다. 투자진출	29
라. 프로젝트	32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34
가. 교역	34
나. 투자	36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40
III. 진출전략	44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44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5
3. 한-말레이시아 경험을 통한 진출전략	52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57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58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59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59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60



#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 1. 개요

### 가. 시장전망

#### ■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세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올해 말레이시아 내 COVID-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9월 세계은행은 2021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에서 3.3%로 하향 조정
  - 2020년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인 -5.6%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도 최대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까지 치솟는 등 상황이 악화됨
  - 현지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이동제한 강화, 필수업종을 제외한 사업장 운영 금지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음
- 2021년 9월 이후, COVID-19 백신 접종률 증가 및 확진자 수 감소의 영향으로 봉쇄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반영해 세계은행은 2022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을 5.8%로 예상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상	2022년(f)
인구	백만 명	30.7	31.2	31.6	32.4	32.5	32.6	32.7	-
명목 GDP	십억 달러	296.4	296.5	302.7	338.0	343.4	337	181.4	-
1인당 명목GDP	달러	9,663	9,523	9,965	11,080	11,231	10,343	5,553	-
실질성장률	%	5.0	4.2	4.8	4.7	4.4	-5.6	7.8	5.8
실업률	%	3.2	3.4	6.3	3.3	3.3	4.5	4.8	-
소비자물가상승률	%	2.7	1.8	4.1	1.0	0.7	-1.2	2.4	-
재정수지(GDP대비)	%	4.4	0.9	6.3	-3.7	-3.4	-6.2	-5.4	-
총수출	백만 달러	174,631	165,324	188,239	248,830.0	238,255	233,569	142,825	-
(對韓 수출)	"	8,609	7,507	5,443	8,474.0	8,155	8,230	4,341	-
총수입	"	146,687	140,948	163,364	218,110.1	205,089	189,570	114,763	-
(對韓 수입)	"	7,735	7,533	5,663	9,739.2	9,373	10,765	5,633.4	-
무역수지	백만 달러	27,944	24,377	24,875	30,719.9	33,167	43,999	28,062	-
경상수지	"	9,068	6,921	6,698	7,568.2	12,300	14,275	6,519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4.29	4.49	4.30	4.03	4.14	4.2	4.1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0.5	8.0	5.6	5.1	6.2	2.8	2.9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0.1	11.3	9.4	7.6	7.8	3.5	4.2	-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Central Bank of Malaysia (BNM), Ministry of Finance

##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2022년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인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현지 정부는 COVID-19에 대응하여 국가봉쇄와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주요 대형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정부지출 확대에 기반을 둔 내수·수출의 회복 속도가 2022년 말레이시아 경제 정상화의 관건임.

### 가. 높은 COVID-19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경제 회복 기대

#### ■ COVID-19 백신접종률 동남아 지역 최고 수준인 말레이시아

- 올해 상반기 COVID-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전면적 국가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말레이시아 경기 침체가 심화됨
  - 5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인구 1백만명 당 COVID-19 확진자 수는 210.28명으로, 인도 188.08명과 미국 91.06명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1백만명 당 사망자 수는 2.14명으로 동남아시아 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국가 위기에 봉착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회사 및 사업장의 운영 금지, 주(州)간 이동 금지, 외출 시간 제한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 회복에 지속적인 차질이 발생
- 4분기 COVID-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서 경제 봉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
  - 7월 이후 COVID-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며 10월 현재 전체 인구의 69%, 성인의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상황으로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 유지
  -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현지 정부는 회사 운영 제한적 허용, 이동 금지 해제, 해외입국자 격리 기간 단축(14일→7일) 등 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 현지 바이어의 수입 계획이 중지·철회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이 영향을 받았음. 그러나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경제 또한 정상화되고 있어 2022년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나. 제 12차 말레이시아 계획

### ■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회 및 결과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제 12차 말레이시아 계획을 9.27일 하원에 제출

- 주요 목표로 △연 4.5~5.5% GDP 성장률 유지, △가계 평균월소득 10,065 링깃 달성, △중앙 지역과 Sabah 및 Sarawak 지역간 1인당 GDP 격차 해소, △GDP 당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이 있음
- 동 계획은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제 11차 말레이시아 계획'과 유사하지만 예산 규모가 대폭 확충\*됐으며 취약계층 지원 등의 부문이 전보다 강조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 \* (제11차) 2,600억 링깃 → (제12차) 4,000억 링깃
  - 특히, Sabah, Sarawak 및 저개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디지털 경제 등과 같은 사업 계획이 세분화됐으며, 부미푸트라(말레이 토착민족) 지원 정책 또한 제11차 계획에 비해 강화됨
-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동 계획을 안내하는 연설에서 경제성장 활성화 및 소득격차 해소 등 9개 중점 추진 분야를 소개

#### 〈제12차 계획 중점 추진 분야〉

1. 경제성장 활성화(Revitalising Economic Growth)
2. 경제성장 요인 강화(Strengthening Growth Enablers)
3. 말레이시아 국민의 복지 개선(Increasing the Wellbeing of Keluarga Malaysia)
4. 보안 및 공공 안전 강화(Enhancing Security and Public Safety)
5. 극심한 빈곤퇴치와 소득격차 해소(Eradicating Hardcore Poverty and Narrowing Income Gaps)
6. 부미푸트라 정책 및 기타 취약계층 지원 정책 강화(Enhancing the Bumiputera Agenda and Keluarga Malaysia)
7. Sabah, Sarawak 등 저개발 주 개발 촉진(Boosting Development in Sabah, Sarawak and Less Developed States)
8. 녹색성장 촉진(Advancing Green Growth)
9.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 및 효과적인 정책 추진 보장(Increasing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Delivery and Ensuring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 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 전기전자, 글로벌 서비스, 항공우주, 할랄, 스마트 농업 등 영향력이 큰 전략 산업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마이크로기업의 혁신을 강화 등이 있음
  - 동 정책의 추진을 통해 산업별 평균 2.6~5.7% 성장률 달성 및 2025년에 중소기업·마이크로기업이 총 GDP의 45%, 총 수출의 25% 비중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경제성장 활성화 정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산업별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업: 역내 서비스 허브가 되기 위한 현대화 전략 실시</li> <li>제조업: 4차 산업혁명(4IR)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주체로 발돋움</li> <li>농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 강화</li> <li>건설업: Construction 4.0 Strategic Plan에 따라 건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의 활용 가속화</li> <li>광업: 고부가가치 가공 광물 생산, 지속가능한 광업, 새로운 광물 추출 등에 초점</li> </ul>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기술 활용 및 연구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촉진</li> </ul>
국제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CEP 등 FTA 비준</li> </ul>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ional Investment Aspirations(NIA) 정책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첨단기술 기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인센티브를 검토</li> </ul>
중소·마이크로기업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혁신을 기초로 성장 활성화</li> </ul>
전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우주 및 전기전자 분야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기금 설립</li> <li>미래 산업을 위한 Centre of Excellence 설립</li> <li>지적 재산권 기금 설립</li> <li>말레이시아 기업의 첨단기술 및 디지털화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 대출(soft loan) 제공</li> </ul>

자료: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경제성장 요인 강화를 위해 사브리 총리는 디지털화, 첨단기술 연구·개발·국산화, 철도·도로망 인프라 구축, 국가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실시할 것을 발표
  - 정책 추진 시 2025년까지 총 GDP에 대한 디지털 경제 기여도 25% 및 GDP 대비 연구개발 총지출 비율 2.5%(2020년 1.0%)의 성과가 예상됨

〈경제성장 요인 강화 정책 방향〉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디지털화	4G, 5G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디지털네트워크 사업(Jendela1)를 통해 2025년까지 인구 밀집 지역에 100% 4G 커버리지를 제공(2021.8월 94%), 5G 커버리지 확대 등</li> <li>5G 네트워크 2021년 말에 구축 시작(민간 150억링깃 추가 투자)</li> </ul>
	신원 확인, 전자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원 확인 플랫폼 및 전자 인증 시스템 구축</li> </ul>
	gig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ig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li> </ul>
	플랫폼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랫폼 제공자, 직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발</li> </ul>
	디지털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농어촌 인터넷 센터 등을 온라인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센터(Pusat Digital Keluarga Malaysia)로 전환</li> </ul>
연구, 개발, 상용화 및 혁신	정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연구 자금의 50%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실험 연구에 할당</li> <li>* 상용화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센터의 설립 승인</li> </ul>
인프라투자	철도·도로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lang Valley Double Track Phase One 등 기존 및 신규 철도·도로망 사업 수행</li> </ul>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3.0 model에 따라 인프라 사업은 정부재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실시</li> <li>* Chief Secretary to the Government가 의장인 특별 PPP 위원회 설립</li> </ul>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국가 교육시스템 개선	교육 시설 개선	• 노후건물 148동 교체(2021~2022년중, 예산 16억링깃) • 4개 학교단지 및 5개 학교 신규 건설(예산 8.48억링깃)
	TVET	• 기술직업교육훈련 수급 데이터 담당 플랫폼 등 개발
일자리 창출	정책	• 노동시장의 불일치 문제 해결 계획 및 탄력적이고 숙련된 인력 공급 계획
	외국인 노동자	•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15%로 제한

자료: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한편,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저개발 주(州)의 기본 인프라, 디지털화, 교육, 보건, 경제 개발 등에 대한 투자에 제12차 계획 예산의 최소 50%를 활용할 계획
  - 동 정책 추진 시 2021~2025년 중 Sabah와 Sarawak은 각 6.5% 및 5.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 〈빈곤퇴치와 소득격차 해소 정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	• Sabah 36.1억링깃, Sarawak 40.9억링깃의 예산 배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기공급	• 신규 발전소 건설, Sabah East-West Grid 업그레이드, Baleh 수력 발전 건설 등
의료서비스	• Universiti Malaysia Sabah Teaching Hospital 및 Universiti Malaysia Sarawak Teaching Hospital 설립 완료 • Sabah 및 Sarawak에 26개 clinic 신설
주거	•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Sabah 및 Sarawak 저소득층 2.6만 가구 혜택
도로	• 약 2,800km의 도로 신축·보수
소규모 인프라	• Program Ameniti Sosial(예산 3.1억링깃, 마을 생활편의시설 제공), Jalan Perhubungan Desa(1.6억링깃, 마을 도로 건설 사업) 사업 지속
수도, 전기	• 상수도 및 전기 보급률 각각 98% 및 99% 도달 목표

자료: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말레이시아가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ESG 및 지속가능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달성, 수도 부문 개혁 등 추진
  - 2030년 기준 GDP당 온실가스 배출밀도 45% 축소, 2025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중 31% 달성 및 녹색 조달 비중 25% 확대 등의 성과가 기대됨

〈녹색성장 촉진 정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ESG	• 정부 결정과정에 ESG 고려
탄소 중립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탄소세, 탄소가격제도 등 도입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중지
에너지	• National Energy Policy 발표 및 에너지 효율과 절약에 관한 법률 도입 예정 • 말레이시아 반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발전소로 대체 • 총 발전 설비 규모 대비 대체에너지 비중 2025년까지 31% 확대
순환 경제	• 오염, 폐기물 및 천연자원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경제 모델 도입
녹색 도시	• 120개 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자격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Green City Action Plan 확대 실행
교통 수단	• 에너지 효율 차량(EEV) 생산 개발에 우선순위 부여
온실 가스	• 온실가스 배출밀도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과 국가대응계획 도입 예정
정부 조달	• 정부의 녹색조달 정책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총 조달 대비 녹색조달 비중 25% 달성
해양	• 청색경제(blue economy) 청사진 도입 계획
홍수 방지	• 홍수 완화, 통합 하천관리, 해안 침식 통제 등을 위해 160억링깃 배정
수도	• Water Sector Transformation 2040 agenda 도입 • 수도 관련 인프라 개발에 258억링깃 배정하여 2025년까지 무수수 량 비율 25%까지 축소

자료: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다. 주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가속화

■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가 작업에 차질을 빚었으나, 국가 봉쇄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

- 2020년 승인된 프로젝트 건수와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COVID-19 상황이 개선되면서 2021년에는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프로젝트 건수와 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제조, 서비스 및 1차 산업부문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는 총 4,599건이며 투자금액은 약 1,640억 링깃으로 2019년 기준 프로젝트 5,287건 및 2,114억 링깃에 비해 감소함
  -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2022년 시행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Fortune 500대 기업을 포함하여 자동차, 화학, 첨단 제품의 해외 기업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
- 주요 프로젝트로는 Klang Valley Mass Rapid Transit, MRT2, MRT3, Bandar Malaysia, Pan Borneo Highway, Bintulu Petrochemical Hub, 동부해안철도연결(ECRL), 페낭 남섬(PSI) 등이 있음
  -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

도(HSR)' 사업은 양국 정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종료됐으며, 향후 '쿠알라룸푸르-조호르 고속철도'로 변경해 추진될 예정

〈MRT Putrajaya Line(MRT2) 노선도〉

ALIGNMENT MAP



자료: MYART 사이트 이미지

##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2021년 8월 무히딘 총리가 COVID-19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이스마일 사브리 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신임 총리로 임명됨. 이스마일 총리는 COVID-19 방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원활한 경제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경을 개방해 인적·물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화, 첨단기술 연구, 인프라 개설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가. 정치 환경

■ COVID-19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총리 교체 단행

- 2020년 3월 말레이시아 8대 총리로 임명된 무히딘 前총리는 COVID-19의 확산을 막는데 실패하며 총리직에서 사임
  - 2020년 말레이시아는 COVID-19 억제를 위해 강력한 국가 봉쇄 정책을 시행했으나, 2021년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2만명까지 증가하는 등 확산세 지속
  - COVID-19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경제난이 심화되자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며, 야당의 사퇴 촉구마저 거세지자 결국 무히딘 총리는 부임 17개월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남
- 2021년 8월, 9대 총리로 임명된 이스마일 사브리 前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향후 COVID-19 확산 방지 및 정국 안정, 경제 회복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이스마일 총리는 침체된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국민 복지, 소득 격차 해소, 저개발 지역 집중 투자 등 균등 분배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부미푸트라 관련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부미푸트라 변영부(Bahagian Kemakmuran Bumiputra)가 부활하는 등 부미푸트라 관련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말레이시아 인종구분별 인구수〉

인종구분	2020년		2021년 (현지정부 추산)	
	인구수 (백만명)	비중 (%)	인구수 (백만명)	비중 (%)
말레이계 (Bumiputera)	20.64	69.6	20.67	69.8
중국계 (Chinese)	6.71	22.6	6.71	22.4
인도계 (Indian)	2.02	6.8	2.02	6.8
기타	0.31	1.0	0.30	1.0
계	29.68	100	29.70	100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부미푸트라(Bumiputra) 정책이란?〉

- 의미 : 말레이시아 원주민 후예라는 뜻으로 정부가 말레이계 및 사바·사라왁 원주민에게 펼치는 특별 우대 정책
- 배경 : 1969년 인종폭동이 발생하자 집권 연정 내 핵심 정파 UMNO당(말레이계)과 MCA당(중국계)은 폭동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국계 신변 안전과 상공업 활동은 보장하되 부미푸트라에게 특혜 부여라는 정치적 절충안에 타협
- 관련 법령
  - 연방 헌법에 의거 부미푸트라에게 교육(대입 전형, 장학금), 정부·공공기관 취업, 상업 비즈니스(세금, 입찰, 인허가 등) 특혜 부여
  - 선동행위처벌법에 의거 상기 헌법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는 1,700미달러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부과

자료: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말레이시아 개황)

나. 경제 환경

■ 말레이시아의 주요 경제 기반은 천연자원과 제조업

- 원유 및 천연가스, 팜유(야자유, 생산 세계 2위), 고무,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
-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분야 육성을 1980년대부터 추진해왔고 자체 자동차 브랜드 보유(프로톤, 페르두아) 및 전기전자 생산 기지를 다수 보유
- 최근에는 Industry 4.0 기조와 더불어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등을 실현하여 제조업 분야에 있어 타 동남아 경쟁국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 중 (Industry 4WRD 정책 발표·시행 등)

### ■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갖췄지만 COVID-19로 인한 경제 피해 막심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 다음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로(1인당 국민소득 11,000USD 상회) 높은 경제 수준 유지
- 전체 신흥 시장 평균 정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COVID-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021년에는 타 신흥국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전망

#### 〈전 세계 및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 전망치〉

(단위 : %)

구 분	2020	2021 추정	2022 전망
전 세계	-3.2	6.0	4.9
선진 시장	-4.6	5.6	4.4
신흥 시장	-2.1	6.3	5.2
말레이시아	-5.6	3.3	5.8

자료: 전 세계, 선진, 신흥시장 전망치 : IMF(2021.7), 말레이시아 전망치 : World Bank(2021.10)

### ■ 2022년도 경제성장은 대형 프로젝트 등 정부 지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2021년 COVID-19로 인해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정부는 경기부양정책 및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목표
- 2022년에는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평년 수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공공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민간분야 투자·소비 활성화 시기가 경제 회복의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GDP의 부문별 구성 비중(연도별)〉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반기
GDP	4.2	5.9	4.8	4.4	-5.6	7.8
국내 수요	4.5	6.5	5.5	4.3	-5.8	5.7
민간소비	6.0	7.0	8.0	7.7	-4.3	5.1
정부소비	0.9	5.4	3.2	1.8	3.9	7.5
무역수지	0.4	-3.9	6.2	11.2	-13.0	15.6
수출	1.3	8.7	1.9	-1.0	-8.9	24.7
수입	1.4	10.2	1.5	-2.4	-8.4	25.3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 ■ 주요 산업분야 전망

- 2021년도는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 조업 중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
- 제조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했던 2021년 4월 구매자관리지수(PMI) 54를 기록한 이후 계속 수축됐으나, 9월 48.1로 반등하며 회복세
  - \* 구매자관리지수(PMI):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함
- 건설 분야는 건설 현장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2021년 2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재개 혹은 착수될 경우 2022년에도 높은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주요 산업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점유율 (2020)	2020		2021		
		2분기	상반기	1분기	2분기	상반기
서비스	57.7	-16.2	-6.6	-2.3	13.4	5.6
제조업	22.9	-18.3	-8.5	6.6	26.6	16.6
광업	6.8	-20.8	-11.9	-5.0	13.9	4.5
농업	7.4	0.9	-3.9	0.2	-1.5	-0.7
건설	4.0	-44.5	-26.2	-10.4	40.3	15.0
실질 GDP	100	-17.2	-8.3	-0.5	16.1	7.8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 ■ 교역 동향

- 2018년 이후 교역량이 줄어드는 추세며 특히, 2020년은 COVID-19의 영향으로 생산 소비 물류 등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며 교역량이 감소함
- 2021년 말레이시아 교역량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4월 경제 봉쇄 조치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2021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수출량의 35%, 수입량의 26.8%가 상승하는 등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
  -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국경 개방을 추진하는 등 봉쇄 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2022년 교역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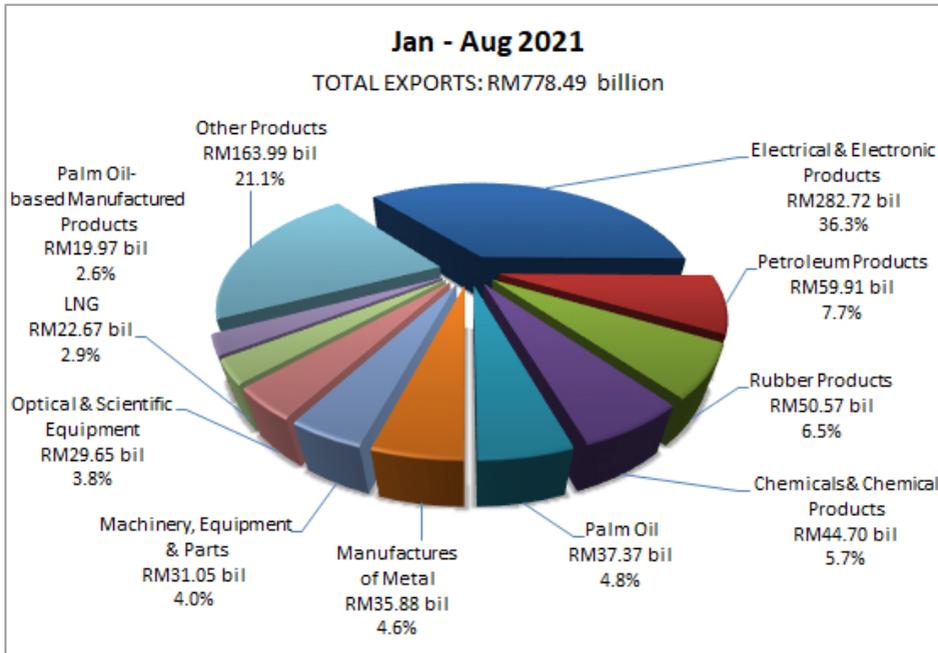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반기
수출	199,959	189,743	217,944	248,830	240,300	234,761	142,931
수입	175,977	168,684	195,243	218,110	205,095	190,856	114,848

자료: World Trade Atlas

〈2020년 1-8월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출액 비중〉



자료: MATRADE

### ■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세계 경제불황과 석유가스 부문 외국인 투자위축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20년 COVID-19로 인해 투자유치액과 해외투자액 모두 대폭 감소했으나, 2021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각각 110%와 89.6% 증가하며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단위: 백만 달러)

유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투자유치	11,336	9,399	7,618	7,813	3,483	4,243
해외투자	8,011	5,638	5,114	6,231	2,837	2,878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 기타, 2021년 8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하는 등 4분기에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4.6% 기록

## 다. 산업 환경

### ■ 소비재 / 소비시장 관련 현황

#### ● 현지 소비시장 개관 및 규모

- 말레이시아는 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1인당 GDP 약 1만 달러) 고급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 비중도 높은 편임
- 소비재 유통·판매 채널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플랫폼, 직접판매(Direct Selling) 등 다양하며 특히 인터넷, 할부거래,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첨단 소비가 동남아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됨
- 말레이시아 소매업은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액이 전체 소매 판매액의 약 85%로 매장 방문 구매가 일반적이나, COVID-19 발생 이후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매출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

\* 2015~2020년 연평균 온라인 소매 판매액 성장률 : 10.4%

\* 2015~2020년 연평균 오프라인 소매 판매액 성장률 : 0.9%

#### 〈말레이시아 소매업 분류별 판매액〉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tore-based 소매 판매액	45,972	44,714	43,868	48,609	49,307	44,761
Non-Store-based 소매 판매액	5,878	5,570	6,497	7,358	8,135	8,968
계	51,850	50,283	50,364	55,966	57,441	53,729

\* Store-based 소매점 : 대형마트, 아웃렛, 럭셔리몰, 중소형 소매점

\*\* Non-Store-based 소매점 : 직접판매(Direct Selling), 홈쇼핑, 온라인쇼핑, 모바일 쇼핑 등

자료: 유로모니터 (리서치/인터뷰/보도자료 등 종합)

#### 〈말레이시아 소매업 분류별 성장률〉

(단위 : %)

구분	2019년 대비 2020년 성장률	2015~2020년 연평균 성장률	2015년 대비 2020년 성장률
Store-based 소매 판매액	-7.9	0.9	4.8
Non-Store-based 소매 판매액	11.9	10.4	64.2
계	-5.1	2.2	11.5

자료: 유로모니터 (리서치/인터뷰/보도자료 등 종합)

### ■ 전력 플랜트 및 공공인프라 분야

-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향후 대체 에너지원 활용 확대를 위해 추가 발전소 건설 진행 중

- 특히 동남아 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선도적 개발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스마트 미터기 프로젝트,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등의 발주 추진 중
- 광역수도권개발(Grater Kuala Lumpur/Klang Valley)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MRT/LRT 건설 추진 중
  - MRT2 프로젝트는 Kwasa Damansara와 Putrajaya를 잇는 노선으로 1단계 노선은 2021년 11월, 2단계 노선은 2023년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 LRT3 프로젝트는 Klang Valley와 Kuala Lumpur를 잇는 37.8km 길이의 노선으로, 현재 60%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말 완공될 예정
  - 640km 길이의 동부 해안선(ECRL) 프로젝트는 Kelantan에서 시작하여 Putrajaya, Klang Vally를 잇는 노선으로 총 440억 링깃 규모로 2026년에 완공되어 2027년 초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유력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또는 기 수주 현지기업으로부터 EPC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이 있음
- 현지기업이 수행 가능한 분야(토목 등)에서는 현지기업들에 우선권을 주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분야 또는 신기술을 앞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전략 추진 필요

#### ■ 오프쇼어 및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

- 2008년 이후 석유·가스 생산량 감소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숙유정(Mature Field), 한계 유정(Marginal Field), 심해(Deep Sea) 유정 개발을 통해 생산량 확대에 노력해왔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추가 개발보다는 현재 생산유정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음
- 또한 신규 프로젝트 발주 계획이 지연되는 대신 노후 유전이나 폐유전의 개보수 및 철거 수요도 생겨나고 있음
- 페트로나스의 비용절감 전략에 따라 공급업체들은 다양한 공급채널 확보에 신경 쓰고 있으며, 한국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임
  - 2020년 8월 페트로나스 케미컬(PCG)은 IG화학과 니트릴부타디엔 라텍스 제조 플랜트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시설은 2021년 착공 시작하여 2023년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Johor에 있는 Pengerang Integrated Complex에 건립될 예정
- 페트로나스는 최근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50MWp 이상의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 페트로나스는 Sarawak의 메가 메탄올 플랜트 건설을 위해 기술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녹색수소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 할랄 분야

-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KIM) 및 진흥기관(HDC), 할랄 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 할랄 환경이 매우 양호한 편이며,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국 내 무슬림 소비자와 수많은 할랄 기업을 기반으로 할랄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2008~2020)’에 기반하여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허브’로 만들기 위해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역,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마스터플랜 2030을 발표할 계획
-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할랄인증(JAKIM 할랄 인증)을 전 세계적인 인증체제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에 민간 할랄인증들을 모두 폐지하고 정부 할랄 인증인 JAKIM 인증으로 통합하고 전 세계적인 여타의 할랄인증과 교차인증을 확대해 가고 있음  
\* JAKIM은 ‘이슬람개발부’라는 정부부처 명칭이며, ‘할랄’ 업무도 관장

〈JAKIM 인증 마크 및 교차 인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6개국 85개 할랄 인증기관과 교차 인정</li> <li>● 한국(2), 호주(7), 일본(7), 중국(7), 인도(3), 네덜란드(3) 등 * www.halal.gov.my (Recognised Foreign Halal Certified Body)</li> </ul>
--	--	--

〈말레이시아 할랄산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및 시장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0개 할랄제품 생산기업과 2천만 무슬림소비자 보유</li> <li>- 할랄 소비시장(억달러) : 식음료(39억), 의약품(21억), 화장품(19억)</li> <li>- 할랄 수출 : 100억 달러(식음료 44%, 화장품 5.2%, 의약품 1.6%)</li> </ul> </li> <li>● 할랄산업 글로벌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음료, 화장품, 개인용품, 물류, 의약산업 등 6개 분야 말레이시아 할랄표준(MS)을 먼저 제정해 할랄 국제표준 선도</li> <li>- 할랄분야 국제 인지도 최고 수준인 국제할랄쇼케이스(MIHAS) 개최 * 2004년부터 매년 8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2020년-2021년은 온라인 개최</li> </ul> </li> <li>● 전담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할랄 관련 교역·투자 진흥기관을 2006년에 설립(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할랄개발공사)</li> </ul> </li> </ul>
--

## 라. 정책·규제 환경

### ■ Shared Prosperity Vision 2030(SPV 2030) (하기는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정리 내용 각색)

- 2019.10.5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 사회·경제 구조를 평가하고 예상되는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비전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 이하 SPV2030)”을 발표
  - SPV2030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시계로 하는 일종의 장기 국가발전 로드맵
- SPV2030은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 전체 국민들이 적절한 생활수준(Decent Standard of Living)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 설정
  - 각 소득계층·인종·지역·공급부문(Supply Chain)별 공정·공평한 분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달성하는 국가 건설을 추구
  - 아울러 정치적 안정 강화와 국가번영 향상을 추구하고, 인종·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통합을 지향
- SPV2030은 말레이시아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3가지 목표(Objective)와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15개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을 제시
  -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s), 핵심 지원요소(Enablers) 및 성과지표(Target Achievement) 등을 설정

#### 〈전략적 추진분야 및 세부 추진 목표〉

전략적 추진분야	세부 추진 목표(예시)
① 기업·산업 생태계 (Business & Industry Eco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영세기업의 GDP 기여도 50%까지 확대</li> <li>• 제조업·서비스업 영위 첨단 중소기업 30% 신규 창출</li> <li>• 각 산업부문별 부미푸트라 첨단 중소기업 비중 최소 20% 이상</li> <li>• 부미푸트라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20%까지 확대</li> </ul>
② 핵심 경제성장 활동 (Key Economic Growth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투자액의 40%를 기계·장비 부문에 투자</li> <li>• 첨단산업 비중 확대: 제조업중 50%, 서비스업중 30%</li> <li>• 회복력을 갖는 신규 경제성장활동* 구축</li> <li>* 이슬람금융 허브 2.0, 신재생에너지, 녹색경제, Commodity 2.0, CoE(전문가 센터), 아세안 허브 등</li> </ul>
③ 인적자본 (Human 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의 고숙련노동자 비중 35% 이상</li> <li>• 고숙련 일자리와 미래경제 분야에 대한 부미푸트라 노동력 비중 확대</li> <li>• 인적자원개발기금(HRDF)의 40%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훈련에 투자</li> <li>• 대입시험(SPM) 수료자의 60% 이상 직업기술교육(TVET) 이수</li> <li>• 산업계 필요·요구에 기반한 대학·기술교육기관 프로그램 구성</li> <li>• 다국적기업내 경영·전문분야 담당 현지·부미푸트라직원 비중 확대</li> </ul>

전략적 추진분야	세부 추진 목표(예시)
④ 노동시장·피고용자 보수 (Labour Market & Compensation of Employ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성별·인종·종교별 차별이 없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li> <li>평균 임금인상률을 연간 생산성 증가율의 75%까지 인상</li> <li>경제적 방해 및 차별 행태 해소</li> <li>각 산업부문별 기술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li> <li>각 산업별 한도 설정을 통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수 축소</li> <li>부미푸트라 피고용자 보수의 GDP 기여도 확대</li> </ul>
⑤ 사회복지 (Social Wellbe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능력기반 평균 임금비율</li> <li>상대적 빈곤지수에 기반한 빈곤수준 평가</li> <li>모든 지역내 보육시설 설치</li> <li>주택비용부담(HCB) 접근방식을 활용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가격 책정</li> </ul>
⑥ 지역 포용성 (Regional Incl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도-농 대중교통시스템 구축</li> <li>개발단계에 있는 각 주에 최소 10개 이상의 상장기업(중 절반은 부미푸트라 기업) 유치</li> <li>지역간 소득격차를 절반으로 축소</li> <li>말레이시아 보호지정토지(Malay Reserve Land)의 규모·질 재평가</li> <li>클랑밸리 이외 지역에 새로운 경제거점(Economic Hotspot) 구축</li> <li>국가 중요 인프라 개발계획(병원, 학교, 다리 등) 실현</li> </ul>
⑦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자본과 관련된 평가지수* 개선</li> <li>* 통합지수, 청렴·반부패지수, 종교화합지수, 환경·기후변화지수, 마약퇴치지수, 범죄예방 지수, 지역사회화합지수, 국민건강지수 등</li> </ul>

- 특히 SPV 2030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계량화된 성과 지표를 설정
  - 명목 GDP 3조 4천억 링깃 달성 (2021-2030년중 연평균4.7% 성장)
  - 인종별 상대적 가계소득(중앙값기준), 부미푸트라:중국:인도 = 0.9:1:1\* 달성
    - \* 2019년 기준 부미푸트라계:중국계 = 0.73:1, 인도계:중국계 = 0.81:1
  - 인종별 상대적 임금수준(중앙값 기준), 부미푸트라:중국:인도 = 1:1:1\* 달성
    - \* 2019년 기준 부미푸트라계:중국계 = 0.84:1, 인도계:중국계 = 0.83:1
  -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50%
  - 소득 하위 40% 이하 계층(B40)의 월평균 소득 5,800링깃 이상
  - GDP 대비 피고용자 보수 48%\* 이상
    - \* 2018년 기준 피고용자보수: GDP의 35.7%
  - 지역별 상대적 경제규모, 북부:동부:중부:남부:사바:사라왁 = 1.6:2.0:1.0:1.4:1.5:1.2\* 달성
  - 부미푸트라기업의 국민소득(National Income) 기여도 20%
  - 인종별 1인당 금융자산 상대적 보유규모, 부미푸트라:중국=0.6:1, 인도:중국=0.8:1 달성\*
    - \* 2019년 기준 부미푸트라:중국 = 0.5:1, 인도계:중국계 = 0.7:1
  - 지니계수 0.34 달성

### ■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혁신 정책 (Industry 4WRD 정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0월 'Industry 4WRD(National Policy on Industry 4.0)'를 발표했으며, 이는 혁신 역량 제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함

- ‘Industry 4WRD’의 비전은 △ 아태지역의 스마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의 전략적 파트너 △ 첨단기술 산업의 메카 △ 첨단기술 토털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도약임
- 정부는 위 비전 달성을 위해 △ 노동생산성 향상 △ 제조업 비중 확대 △ 혁신 역량 강화 △ 고급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
- 정부는 이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 ‘FIRST(Funding, Infrastructure, Regulations, Skills & Talent, Technology)’를 채택
- ‘Industry 4WRD’ 계획 하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화학 등 중점 육성 산업 및 세부 분야를 선정함

### 〈‘Industry 4WRD’의 중점 육성 산업〉

중점 육성 산업	세부 업종
전기전자	전자부품, 소비자 가전, 산업전자(Industrial electronics), 전기제품
기계 및 장비	특수·일반·발전 기계 및 장비, 공작기계
화학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함유 화학제품(Oleochemical)
의료기기	의료기기 소모품(Consumables), 외과 기계, 임상 장비, 임플란트, 헬스케어 기기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항공기 제조(Aero-manufacturing), 시스템 통합,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기타	자동차, 교통, 섬유, 제약, 금속, 식품가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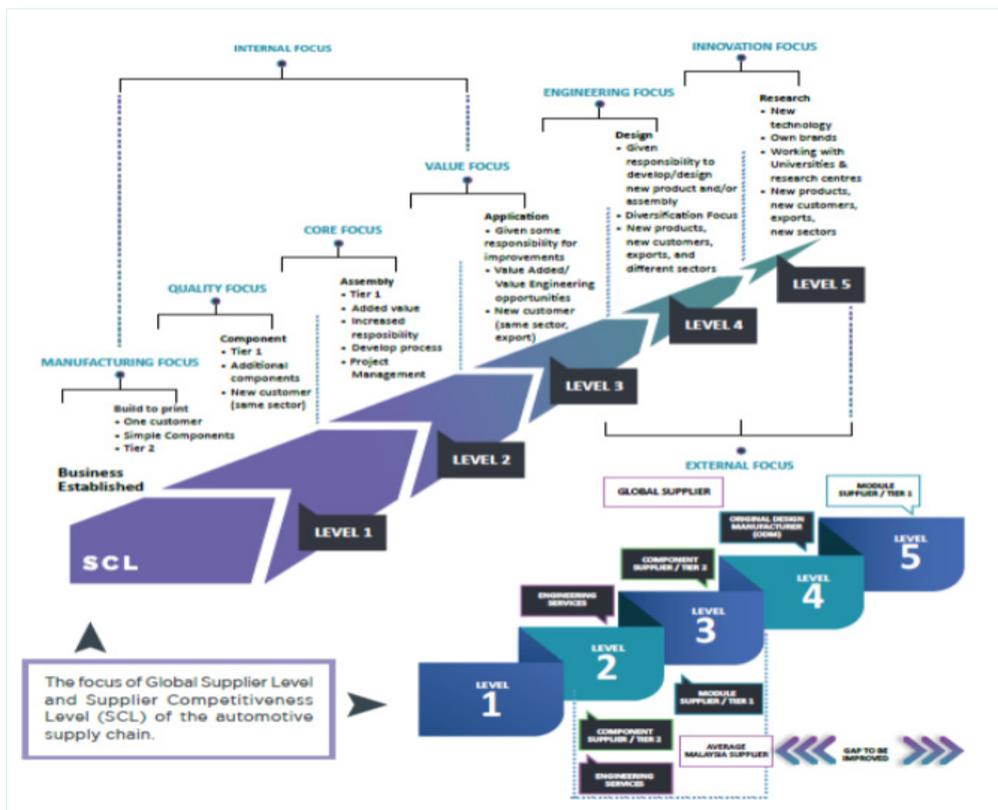
자료: KIEP(한말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 MITI(Industry 4WRD: National Policy on Industry 4.0)

## ■ National Automotive Policy(NAP) 2020

- NAP 2020은 2020년 2월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설계, 제조 등의 기술 분야에서 동남아시아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정책임
- NAP 2020은 이전 정책인 NAP 2014에 기반하여 3가지 중점 추진 분야와 3가지 전략을 추가하고, 새로운 기술 요소인 차세대 자동차(NxGV), Mobility as a Service(MaaS), 4차 산업혁명 등을 활용함
  - 3가지 중점 추진 분야는 ① 기술 및 엔지니어링, ② 투자유치, ③ 시장 확대이며, 3가지 전략은 ① 밸류 체인 개발, ② 인적 자원 개발, ③ 안전, 환경을 고려한 소비임
  - NxGV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파워트레인, 발전된 주행 성능 및 자동차 간의 연결이 중심 개념임
  - MaaS는 자동차의 소유 개념에서 벗어나 교통수단을 서비스로서 소비할 수 있는 기술여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방식을 도입하여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 밸류체인 개발 전략은 자동차 제조업자 등 고객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 생산에 수반되는  
 高비용을 적응형 제조방식과 인공지능 등의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하는 것이  
 목표임
- 밸류체인 개발 전략은 상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6가지 세부 달성방안을 수립함
  - ① 공급망 활동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대출 조건 완화(Soft Loan)
  - ② 부품 공급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행
  - ③ 기존 부품 시험 설비 개선 및 신규 시험 설비 도입으로 부품의 질 향상
  - ④ 제조업자들이 부가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공급망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재검토
  - ⑤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집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업 육성 및 기존 기업에 대한 생산  
 시스템 솔루션 제시
  - ⑥ 자재·부품의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자동차 제조 공급망에서의 글로벌 공급자 경쟁력〉



\* 자료: 말레이시아 산업통상부(MITI)  
 (https://www.miti.gov.my/miti/resources/NAP%202020/NAP2020\_Booklet.pdf)

- NAP 2020에서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와 수입차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기존의 수입차에 대한 수입 허가(AP) 제도가 계속 유지됨
  - 현재 시행 중인 부품 공급다변화 지원정책(수입세 면제)는 2021년에 철폐될 예정이며, 이는 자국산 부품과 FTA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기업은 수입세 완화를 위해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출 확대와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할 전망이다

### ■ Malaysia Digital Economy Blueprint 2021

- 말레이시아 정부는 △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경쟁력 강화, △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숙련 노동력 개발, △ 안전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의 디지털 정책 전략을 수립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1단계(2021~2022)는 디지털 기반 확대, 2단계(2023-2025)는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3단계(2026-2030)에서는 동남아 시장에서 디지털 콘텐츠 및 사이버 보안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MyDIGITAL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가 디지털 네트워크(Jendela) 프로젝트에 210억 링깃, 2023년까지 국제 해저케이블망 연결을 위해 16억 5천만 링깃, 전국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억 링깃이 투자될 예정

### ■ National Renewable Energy Policy(NREP)

- NREP는 말레이시아의 전력 생산 비중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합리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비용 보장 등이 주 내용임
-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전력 생산량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UN기후변화협약 내 다자간 환경 협약인 Paris Agreement에 따라 2005년 기준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2030년까지 45% 감축하기로 함
- NREP의 세부 정책으로는 Enhanced Net Energy Metering, 태양광 발전 임대,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3(LSS3), 태양광 이외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청(SED)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프로그램 등이 있음

## 2. 시장분석

- ▶ 말레이시아는 개방적인 경제구조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며, 동남아 석유·플랜트 산업의 중심지임. 상권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는 화교들과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 등이 기업 진출 시 유념할 요소임. 탄탄한 중산층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이자 '할랄 허브'로 도약을 꿈꾸는 중동 등 무슬림 시장 진출의 관문임

###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특성

- 지정학적 위치에서 기인한 특성
  - ① 우수한 연결성
    - 말레이시아는 육로로, 말레이 반도 북쪽으로 태국, 남쪽으로 싱가포르를 인접하고 있으며 동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인도네시아를 인접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도 말레이반도가 서쪽으로 끼고 있는 말라카 해협은 동·서양 교역의 허브였으며 현재도 전세계 Oil 수송량의 약 25% 이상이 통과
    - 전 세계 최대 저가항공사인 Air Asia는 말레이시아 기업으로서 동남아 인근의 연결성이 가장 좋은 항공사로 자리매김하여 기존의 해상뿐 아니라 항공연결성도 우수
  - ②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원유, 천연가스, 팜오일, 천연고무, 주석 등 천연자원의 부국으로서 동남아 주요 산유국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LNG 공급원
      - \* 원유 매장량 40억 배럴, 가스 매장량 2조 4,000m<sup>3</sup> 보유 등
      - \* 팜오일(세계 생산 2위), 천연고무(7위), 주석(11위), 원유(27위), 천연가스(15위)
    - 특히 한국에 필수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 경제 구조면의 특성
  - ③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 정부 주도의 5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말레이시아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 방향과 예산투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임
    -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주도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첨단·고부가가치 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자본 유치 노력 중

**④ 대외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경제**

- 인구(3,200만 명)에 비해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RCEP, FTA 등 다양한 통상협정체결에 적극적임
  - \* 양자 FTA 체결국 : 일본('06), 파키스탄('08), 뉴질랜드('10), 인도('11), 칠레('12), 호주('13), 터키('15), [협상중 : 한국, EU, 이란]
  - \* 기타, 아세안 차원에서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RCEP, CPTPP 등 협정 체결에도 적극적
- 아세안을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서 일반제조업, 자동차, 자원, 해양플랜트, IT기술 등 모든 면에서 ASEAN 역내 공급망의 허브를 지향하는 국가임

**⑤ 자원채취·가공 등 제조업 중심의 경제**

- 말레이시아는 도로, 공항, 항만, 인터넷 등 발달된 인프라와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천연자원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외국자본과 제조업을 꾸준히 유치
-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중심으로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단순조립이 아닌 기술집약적 제조업(전기·전자, 기계·장치, 석유화학 등) 등이 진출
  - \* [글로벌기업 진출 예시] (전기·전자) Intel, Toshiba, Hitach, Philips 등, (석유화학) Shell, Exxon Mobil 등, (자동차) Honda, Toyota, Denso 등

● 인구 구성면에서 기인한 특성

**⑥ 화교자본의 영향력이 큰 내수시장**

-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전체 상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화교와의 비즈니스 및 유대 관계 형성이 중요
- 화교자본은 금융, 부동산, 식품, 유통 등 내수시장 거의 전 분야에서 기타 인종의 자본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동남아 타국의 화교자본과의 네트워크가 강점임

**⑦ 말레이계 기업 우대정책 지속**

-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업종 또는 일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업의 진출에 제한을 두고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 적용
- 말레이계 과잉보호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말레이계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에는 타인종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부미푸트라 정책 변화 중

**⑧ 영어 통용**

- 공식언어는 말레이어(바하사)이나 역사적으로 영어 교육의 뿌리가 깊으며 최근 마하티르 총리 재집권과 함께 영어교육은 더욱 강화 중
- 사회 모든 계층에서 영어가 자유롭게 통해 비즈니스에 특히 강점으로 작용

■ 전략적 가치

- ① 높은 소득수준과 한류를 바탕으로 한 동·서남아·중동 시장의 Test-Bed
  -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달하는 중소득국가로서 아세안 역내 국가 중 중산층이 가장 많아 높은 구매력 시현
  - 두터운 중산층을 기반으로 고급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전·자동차 등 고급 내구 소비재와 고품질의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임

〈인종별 소비문화의 일반적인 특징〉

- 말레이계 :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하는 할랄식재료 및 생활용품 소비를 하며 할랄인증마크, 제품원료 등에 민감함. 가성비, 대형 리테일몰(NSK, Giant 등) 위주의 소비 등이 특징
- 중국계 : 트렌드, 브랜드 등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 하이엔드 리테일몰(Village Grocer, Jaya Grocer, Cold Storage, Aeon 등) 방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인도계 : 인도식 생활스타일, 식재료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음식/식재료 분야의 경우 한국 등 외국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임

자료: 현지 리테일 전문가 인터뷰 등 종합

- ② 글로벌 할랄 허브
  - 할랄은 식품에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장비, 화장품, 관광, 숙박, 물류, 포장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의 친환경·오가닉 소비와도 궤를 같이함
  -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할랄 환경을 갖춘 국가 중 하나로서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은 전 세계 할랄 시장의 교두보로 자리 매김 중
    -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JAKIM)은 현재 46개국 84개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
- ③ 석유·가스 및 해양플랜트 산업 중심지
  - 2018년도 정권 교체의 이후 다수의 프로젝트들(특히 국영기업체 발주 프로젝트)이 많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상화 추세
  -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조선기업인 Yinson, 대표적인 선사인 Bumi Armada 등은 신규 입찰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④ ASEAN의 첨단산업·서비스 분야의 허브
  - 주변국 대비 높은 소득 수준, 우수한 IT 등 제반 인프라와 주변국과의 높은 연결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의 허브지역 구축 여건이 양호
  - 주변 ASEAN 국가 대비 높은 인건비로 말레이시아는 필수적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루어야 하며 고부가가치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이 필요 → 말레이시아에 선 진출하여 기타국가의 산업 발전에 따라 주변국 진출 가능

-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ICT·통신(5G 등), 상·하수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ASEAN 국가중 선도적으로 정부 주도의 공공 인프라 구축 확대

## 나. 수출

### ■ 국가별 수출입

- 2021년 상반기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미국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10대 수출대상국임
- 2021년 상반기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7대 수입대상국임
- 말레이시아는 중국, 미국 등 대규모 경제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 베트남 등 ASEAN 역내 국가 등과 교류가 많으며 한국은 수출·수입 모두 매년 10대 교역 대상국 내에 들고 있음

#### 〈말레이시아 10대 교역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19년	'20년	'21년상	국가명	'19년	'20년	'21년상
1	중국	34,026	37,949	21,687	중국	42,409	41,083	26,998
2	싱가포르	33,096	33,930	19,959	싱가포르	21,605	17,587	10,589
3	미국	23,306	26,049	16,613	일본	15,356	14,688	9,008
4	일본	15,946	14,935	9,044	미국	16,581	16,613	8,582
5	홍콩	16,089	16,257	8,679	대만	13,776	13,832	8,354
6	태국	13,608	10,817	6,232	인도네시아	9,391	8,763	6,195
7	베트남	8,547	7,370	5,371	<b>대한민국</b>	<b>9,374</b>	<b>10,908</b>	<b>5,637</b>
8	인도	9,319	7,294	4,998	태국	10,694	8,195	5,447
9	대만	8,939	8,073	4,647	인도	5,859	5,946	3,366
10	<b>대한민국</b>	<b>8,265</b>	<b>8,278</b>	<b>4,345</b>	독일	6,463	5,537	2,983
전세계		234,761	240,300	142,931	전세계	205,095	190,856	114,848

자료: Global Trade Atlas

### ■ 품목별 수출입

- 2021년 상반기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팜오일이며, 3대 수입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석유제품, 금이었음
- 말레이시아의 주요 교역 품목은 전기·전자 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천연자원류로 확인됨

〈말레이시아 10대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HS Code)	'19년	'20년	'20년상	품목명 (HS Code)	'19년	'20년	'20년상
1	전자집적회로 (8542)	44,812	49,409	28,128	전자집적회로 (8542)	31,940	33,434	19,143
2	석유제품 (2710)	14,921	12,793	8,972	석유제품 (2710)	17,504	13,417	9,544
3	팜오일 (1511)	8,598	9,813	6,086	금 (7108)	2,409	2,278	2,602
4	석유가스 (2711)	10,942	7,648	4,443	유선전신기기 (8517)	4,044	3,920	2,098
5	다이오드 반도체 장치 (8541)	8,727	7,625	4,116	다이오드 반도체 장치 (8541)	3,038	3,289	2,074
6	음성녹음매체 (8523)	4,253	5,835	3,190	원유 (2709)	6,482	4,609	1,642
7	유선전화기 (8517)	4,057	4,057	3,000	자동차료처리기 (8471)	2,769	2,539	1,542
8	원유 (2709)	7,032	4,714	2,594	합성고무 (4002)	1,219	1,250	1,509
9	자동차료처리기 (8471)	6,624	4,984	2,569	석탄 (2701)	2,919	2,299	1,454
10	인쇄기기 (8443)	3,163	3,252	2,004	인쇄회로기판 (8534)	2,162	2,563	1,396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규제

-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2008)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 수입불가 :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 수입면허가 없을 시 불가 : 관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불가 : 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예외적으로 가능
  -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 수입허가, 인증 취득 등 정해진 방식을 따르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말레이시아 수입금지·규제 품목〉

<p><b>수입 금지</b> (정치, 경제, 사회, 도덕 환경, 건강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p>	<p>모조화폐 / 공서약속, 사회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단검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등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냅이나 납화학물 함유 혹은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3.46mg/1L 이상 함유한 증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거북이 알 / 피라냐 어족류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코코아 등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p>
<p><b>조건부 수입허가</b> (국제협약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몬트리올 의정서 해당 품목</li> <li>•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관련 품목</li> <li>• 화학무기금지협약 해당 품목</li> </ul>
<p><b>조건부 수입허가</b> (자국산업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제품</li> <li>• 말레이시아 전통의상(사롱, 바틱, 카인)</li> <li>• 양배추</li> </ul>
<p><b>조건부 수입허가</b> (소비자 안전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제품(스위치, 다리미, 주전자, 토스터, 워터히터, 면도기, 헤어드라이어)</li> <li>• 안전벨트</li> <li>• 건축재료(시멘트, 세라믹 제품, 철 및 철강제품 등)</li> <li>• 독극물(살충제, 방사능 물질 등)</li> <li>• 특이 동식물</li> </ul>

- 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할당제도 시행 중
  -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가 있어야 하며,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됨
  - AP 제도는 전년도의 전체 자동차 시장규모와 A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전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일종의 수량 할당제도임

■ 우리 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성공사례〉

- 한류를 활용해 식품시장을 선점한 A사
  - A사는 KOTRA, aT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상품전, 전시회, 한류 연예인 홍보대사 활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입제품 홍보를 진행함
  - 말레이시아 내 대학생들을 방문하여 한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섭외, 한국 제품 지원 및 공동 홍보를 하는 ‘캠퍼스 프로젝트’를 진행
  - 무슬림 소비자를 고려하여 판매 유망상품에 대해 발빠르게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시장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바이럴 마케팅 활용과 에이전트 활용으로 꾸준히 수출 중인 화장품회사 B사
  - B사는 말레이시아 시장 신규 진출을 위해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Youtube 채널 동영상을 적극 활용함. 해당 동영상에 출연하는 회사 전속 화장 모델들을 현지 마케팅 행사에 초청하여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이슈가 됨
  - 한국 본사의 이러한 마케팅 톨을 기반으로 현지 에이전트는 브랜드 프로모션 등은 하지 않고 단순 수출입·판매에만 집중함으로써 전 세계 공통으로 중고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음

〈실패사례〉

- 수출관련 인증정보가 부족하여 납품이 취소된 A사
  - 수처리 플랜트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현지 대형 하수처리 기업 B사에게 인정받고, 수출을 위해 확인 작업을 진행함
  - 확인 작업 중, B사는 A사에 SPAN 등록여부를 문의했으나, SPAN 관련 정보가 없었던 A사는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함
  - 말레이시아 수처리제품 납품을 위해서는 SPAN 등록 자격을 갖춘 말레이시아 현지 회사가 해당 제품에 SPAN 등록을 해야 하며, SPAN 등록이 안된 제품은 납품이 불가함
  - 현지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A사는 납품 취소가 불가피했음

다.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투자환경

-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ASEAN 지역의 중심에 있다는 이점 외에 무슬림, 화교, 인도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영어가 통용된다는 점에서 대내외에 기회가 많은 시장임
- WEF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2021년 국가경쟁력은 25위이며, 인근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 주요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말레이시아	14위	19위	24위	22위	22위	27위	25위
인도네시아	42위	48위	42위	43위	32위	40위	37위
태국	30위	28위	27위	30위	25위	29위	28위
필리핀	41위	42위	41위	50위	46위	45위	52위

자료: IMD

### ■ 주요 외국기업 진출현황

- 말레이시아에는 전기전자산업,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5천여 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음
- 전기전자산업의 대표기업으로는 Intel, AMD, Toshiba, Hitach, Ibdien, Philips, Panasonic, Infenion 등이 있고, 석유화학기업으로는 Royal Dutch Shell, Exxon Mobil, Tokuyama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기업으로는 Honda, Toyta, Denso 등이 있음

[2021년도 상반기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야	금액
제조업	2,457
서비스업	1,051
기타	735
합계	4,243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 현황(2021 상반기까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금액
1	싱가포르	38,087
2	홍콩	21,164
3	일본	19,481
4	네덜란드	15,909
5	미국	10,723
6	스위스	9,328
7	버진아일랜드(영국령)	5,966
8	중국	5,734
9	영국	5,392
10	독일	5,106
11	케이만 제도	4,416
12	대한민국	3,787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alaysia)

### ■ 투자유망 분야

-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에서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고도기술 수반 제조업이나 관광산업, 해운 및 운송업, 교육산업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
- 단, 서비스 산업의 경우 말레이계 현지인 지분 요건을 적용하거나 법률 분야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이 있음

### ■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1989년 9월 삼성전자가 세렘반 전자 복합단지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고려제강, 롯데케미칼, 한화큐셀, OCI 등 한국 제조업체들의 진출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음

- 2016년 '아모레퍼시픽'이 싱가포르 접경지역인 '조호바루'에 제조법인을 설립해 동남아 시장에 진출
- 2017년 제조업 부문에서 3개의 신규, 5개의 확장·변형 프로젝트를 승인받았으며, 롯데케미칼의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증설 프로젝트가 가장 큰 규모임
- 2018년 일진머테리얼은 사라왁 내 Sama Jaya Free Trade Zone에 전기차 배터리용 구리박(Copperfoil) 생산시설 건립에 투자하였으며, 400만 달러 규모의 1단계 플랜트는 연간 10,000톤의 구리박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제조법인 외에 GS홈쇼핑 등 홈쇼핑 기업들과 CJ대한통운 등 유통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차량공유 스타트업인 SOCAR도 2018년 사업을 개시함
- 2021년 SK넥실리스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동박 생산을 위해 5억 9천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7월말 착공해 2023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

###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외국인 지분제한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현지기업에 상당부분 지분을 주어야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상존함

#### 〈분야별 투자진출 제한〉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자(ASP)에 외국자본 지분 100% 허용</li> <li>• 그러나 네트워크 설비 공급자(NFS) 및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NSP)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70%로 제한됨</li> <li>• 특별한 경우 외국인 지분을 70% 이상 허용해주지만,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는 불투명함</li> </ul>
오일 &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개발법 1974(Petroleum Development Act of 1974)에 따르면, 석유가스 산업은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공사(Petronas)에 의해 통제됨</li> <li>• 외국인 참여는 대개 생산 공유 계약(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s)의 형태를 취함</li> </ul>
금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서비스 분야 외국인 지분한도는 70%</li> <li>• 외국계 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의 1.5km 이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립할 수 없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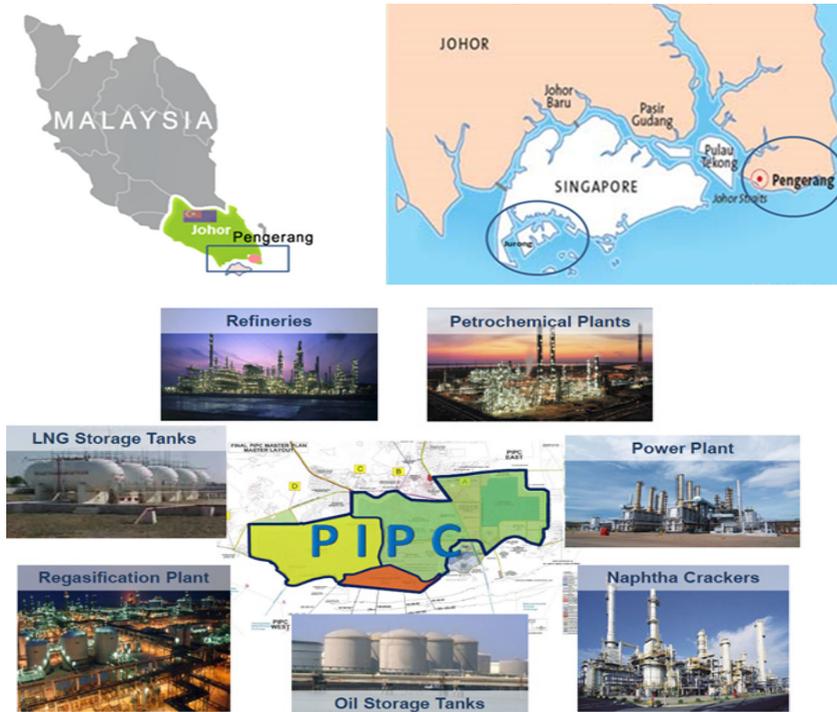
- 또한 외국인 체류자 대상 비자제도가 강화되면서 체류자격 취득이 지연되고 있고, 중앙은행의 규제 강화로 신규 법인 설립 시 현지인 채용을 의무화함

## 라. 프로젝트

### ■ 뽕어랑 종합석유화학단지

- 예산규모 : 약 600억 달러
- 공사규모
  -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인접해 있고, 주변의 석유가스 광구들과 연계성이 좋은 조호르(Johor)주 뽕어랑(Pengerang) 지역에 한국의 여수석유화학단지에 비견되는 뽕어랑 종합석유화학 단지 (PICP)를 구축 중으로, 8,900헥타르에 총 투자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
- 진행상황
  - 전체 단지구성 프로젝트 중에서 Petronas가 정유소(Refinery) 및 연계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로 먼저 추진하고 있는 'RAPID(Refinery and Petrochemical Integrated development) 프로젝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음
  - PICP는 현재 첫 단계를 진행하는 상황이며, Petronas의 'RAPID 프로젝트'와 연계시설을 포함한 270억 달러 규모의 PIC(Petronas Integrated Complex)와 DIALOG, Royal VOPAK 그리고 조호르공사가 합작으로 추진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Pengerang 심해 터미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임

〈뽕어랑 위치 및 종합석유화학단지(PICP) 주요 시설〉



## ■ Johor Bahru-Singapore Rapid Transit System(RTS)

- 예산규모 : 100억 링깃(약 25억 달러)
- 공사규모
  - RTS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의 Bukit Chagar에서 싱가포르의 Woodland를 잇는 4km의 철도 시스템으로 시간당 10,000명의 승객을 운송 가능
- 진행상황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RTS 프로젝트의 재개를 축하하는 공식 행사를 2020년 7월 30일에 개최하였으며, 2021년 초에 시작하여 2026년 연말에 완공 예정
  - 당초 RTS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2019년 4월에 중지되었으며, 이는 이전 정부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위해서였음
  - 말레이시아는 해당 프로젝트의 총 비용 중 39%인 37억 링깃을 부담할 것이며, 나머지는 싱가포르에서 부담할 예정임
  - Prasarna Malaysia社와 싱가포르 철도운영사인 SMRT社는 철도운영 합작회사인 RTS Operation 설립에 합의하는 Joint Venture 협의회에 서명하였음

## ■ Mass Rapid Transit 2(MRT2) Putrajaya Line

- 예산규모 : 305억 링깃(약 76.2억 달러)
- 공사규모
  - Selangor의 Kwasa Damansara와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인 Putrajaya를 잇는 총 연장 57.7km 지하철 공사로, 27개의 지상역과 9개의 지하역을 갖는 총 36개의 역을 운영할 계획임
- 진행상황
  - MRT Putrajaya Line은 Klang Valley MRT 프로젝트의 2호선으로 건설 중이며,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1년 11월 개시 예정
  - 1단계 공사인 Kwasa Damansara에서 Kampung Batu는 2021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2단계 공사의 경우 93.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1월에 운영할 계획

## ■ Light Rail Transit Line 3(LRT3)

- 예산규모 : 166억 링깃(약 41.5억 달러)
- 공사규모
  - LRT3 프로젝트는 Petaling Jaya와 Selangor의 Klang을 잇는 37km 규모의 철도 공사로, 총 20개의 역으로 구성됨

- 진행상황

- LRT3는 Petaling Jaya와 Selangor의 Klang 지역의 200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교통을 담당하고, Kuala Lumpur의 서부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9월 기준 LRT3 프로젝트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말 완공 예정

## ■ Penang Transport Master Plan(PTMP)

- 예산규모 : 460억 링깃(약 115억 달러)

- 공사규모

- PTMP 프로젝트는 Seberang Perai와 본토 Penang 주를 잇는 고속도로, 지하철, 모노레일, 버스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해저터널 건설 프로젝트임

- 진행상황

- 현재 PTMP 프로젝트는 Penang 주 정부에 의해 시작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Gamuda가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SRS 컨소시엄이 Project Delivery Partner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진행 중임

## ■ Kuala Lumpur-Singapore High Speed Rail(HSR)

- 진행상황

-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도(HSR)’ 사업은 양국 정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종료됐으며, ‘쿠알라룸푸르-조호르 고속철도’로 변경해 추진될 예정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외제

### 가. 교역

#### ■ 한국-말레이시아 교역현황

- 2020년 기준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90.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4.2% 감소한 88.9억 달러를 기록

- 2021년 1~8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60.6억 달러, 수입액은 12.7% 증가한 65.4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1년 양국의 총 교역액은 전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7~2021.8월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월)
對말련 수출	8,045 (6.8)	8,994 (11.8)	8,843 (-1.7)	9,078 (2.7)	6,056 (-2.5)
對말련 수입	8,715 (16.1)	10,206 (17.1)	9,280 (-9.1)	8,893 (-4.2)	6,538 (12.7)
교역수지	-670	-1,212	-437	185	-482

자료: 관세청

- COVID-19 재확산 및 전면적 경제 봉쇄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對말련 수출액 감소로 이어짐
- 반도체 장비·부품, 고무제의류, 증폭기 등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총 수입량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량은 소폭 감소

〈2020년 상반기 對말레이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20년		2021년 1월~8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9,078	2.7	6,056	-2.5
집적회로반도체	1,195	2.4	932	22.1
합성고무	730	27.8	769	105.0
휘발유	368	-12.4	524	212.6
기타산업기계	229	-2.8	209	54.0
동괴및스크랩	183	-37.9	201	91.0
합성수지	223	-7.0	196	44.3
기타정밀화학원료	276	-2.0	182	5.9
경유	443	-35.4	166	-45.3
중유	186	-60.5	165	27.4
인쇄회로	193	43.7	163	29.7

자료: 관세청

〈2020년 상반기 對말레이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20년		2021년 1월~8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8,893	-4.2	6,538	12.7
집적회로반도체	1,627	3.4	1,287	30.5
천연가스	1,682	-19.6	988	-13.6
중유	449	-17.8	475	81.2
식물성유지	231	31.9	198	31.7
반도체제조용장비	247	109.4	192	21.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27	-28.2	183	14.9
개별소자반도체	239	6.9	171	-22.1
기타정밀화학제품	209	34.4	141	5.3
계측기	181	2.7	131	14.2
혁리류및기타	78	72.7	122	156.4

자료: 관세청

■ 우리 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사례) 2020년 2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13만톤급 '두아(DUA) FLNG' 성공적으로 인도
  - 두아 FLNG는 페트로나스와 EPC(설계, 조달, 제작) 계약을 통해 설계부터 구매, 생산, 시운전까지 총괄해 건조한 것으로, 삼성중공업의 제작역량, 육상 플랜트 대비 환경 친화적이며 저렴한 투자비용, 운영·이동 용이성을 인정받아 계약 수주에 성공
- (실패사례) 현지 파트너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 없이 신뢰한 A사
  - 말레이시아 현지 파트너가 현지법상 외국기업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믿고 현지 파트너에게 과반수의 지분을 부여
  - 이로 인해 현지 파트너가 공동투자 회사의 경영권 대부분을 행사, 이익의 대다수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게끔 장부를 처리해 계약서에 기재한 수익분배 조항이 무의미하도록 사업을 운영하여 손해 발생

나. 투자

■ 한국의 말레이시아 투자현황

-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투자진출 실적(신고기준)은 총 970건, 16.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 289개 신규법인이 진출함
- 우리나라의 2021년 상반기 對말레이시아 투자진출실적(신고기준)은 50건에 111백만 달러를 기록함

〈2014-2021년 상반기 對말레이시아 한국기업 투자진출 동향〉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년	93	32	280,667	132	135,915
2015년	124	46	54,669	189	59,889
2016년	131	44	239,072	194	202,196
2017년	137	41	397,783	176	407,633
2018년	155	49	140,681	198	109,984
2019년	151	34	255,907	171	231,224
2020년	129	31	172,133	150	138,542
2021년 상반기	50	12	110,912	56	65,827
합계	970	289	1,651,824	1,266	1,351,2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4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28%, 전체 투자금액의 47.1%를 차지하며 핵심 투자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의 뒤를 이어 투자금액 규모가 큰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17백만 달러), 도매 및 소매업(12백만 달러), 정보통신업(2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21년 상반기 對말레이시아 한국기업 투자진출 업종별 분류〉

(단위: 건, 개사, 천 달러)

업종 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4	7	49,830	18	31,025
금융 및 보험업	4	2	36,760	2	17,192
도매 및 소매업	8	1	12,576	12	12,101
정보통신업	8	0	2,639	7	2,6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1,300	1	1,244
건설업	4	1	1,831	4	872
광업	0	0	0	3	2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0	486	2	24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0	5,190	2	190
숙박 및 음식점업	2	0	37	3	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8	1	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	1	4	1	4
운수 및 창고업	1	0	252	0	0
합계	50	12	110,913	56	65,82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기업 말레이시아 진출 현황 및 내용〉

#### 〈제조업〉

말레이시아에는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한화큐셀, CJ바이오, 포스코, 고려제강, OCI 등 현지에 상당 규모의 제조업 기지를 구축한 한국기업들이 있다.

삼성전자는 1989년도에 쿠알라룸푸르 동남쪽 80km 근방의 세렘반 지역에 삼성 SDI 등과 복합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진출한 이래 현재는 전 세계 전자레인지 생산량 1위의 생산기지를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10년 말레이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 중 하나인 타이탄 케미칼을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여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업 기지를 구축하였고 2017년도에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한화는 2012년도에 독일의 태양광 패널생산업체 큐셀을 인수하여 한화큐셀을 창립,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1.8GW 규모의 태양광셀 및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2015년에 CJ 바이오는 바이오 발효공법을 사용한 사료용 필수아미노산(메치오닌) 생산을 위한 공장을 준공하였고, 2016년부터는 아모레퍼시픽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접경 지역인 조호바루 지역에 프랑스, 중국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생산기지를 건립 중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전기아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려제강은 철근케이블, 산업용 스프링 등을 생산하며 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한 OCI는 태양전지 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을 제조하고 있다.

#### 〈건설업〉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 빌딩과 주요 전시장, 교량, 발전소 및 플랜트 등 분야에서 한국 건설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현대건설이 1985년에 완공한 13.5Km 길이의 페낭대교의 경우 말레이시아 서북부 대표 지역인 페낭의 섬과 육지를 잇는 대표적인 인프라이다.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1999년에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쌍둥이빌딩)의 타워2(동측)를 완공하였고 2015년에는 현지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사인 UEM사와 함께 새로운 동남아 최고층 빌딩이 될 KL118타워(118층) 건설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은 쿠알라룸푸르 내 대표적인 국제회의·전시 인프라인 MITEC 전시장을 2017년도에 완공하였고 삼성엔지니어링은 뵙어랑 지역의 석유화학단지를 2016년도에 수주하였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2017년도에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 화력발전소인 말라카종합화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도에 Tadmax사와 공동으로 풀라우인다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다.

#### 〈소매·유통·서비스〉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선두 소비시장이고 동남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 기업들도 진출해 있다.

코웨이에는 현지 식수 등에 대한 안정성 이슈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06년에 진출하여 현재는 70만이 넘는 고객에게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방송·통신·인터넷 환경이 동남아 지역 중 우수하고 쇼핑 문화도 발달해 있는 점에 착안, GS 홈쇼핑은 2015년에 말레이시아의 최대 미디어 그룹인 Astro사와 합작으로 홈쇼핑 채널 Go Shop을 개국하였다. 2016년에는 CJ 오쇼핑이 말레이시아 최대 민영방송사인 미디어 프리마와 손잡고 CJ Wow

홈쇼핑채널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들 현지 메이저 미디어사와 손잡은 한국계 홈쇼핑 채널들은 한국 제품을 포함한 여러 소비재 제품을 TV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개 및 판매 중이다.

현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식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의 진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계뿐 아니라 말레이계도 선호하는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교촌, 비비큐, 네네 등)와 달콤(Dalkomm) 커피, 이삭토스트 등 커피·디저트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최근에는 국산 키즈콘텐츠·VR 장비를 활용한 키즈카페 진출 등 새로운 프랜차이즈 분야도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운송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말레이시아 갖는 지리적 이점과 발달된 통신과 영어 인프라 등을 활용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본부를 말레이시아에 두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016년도에 현지 2위 종합 물류업체인 센추리 로지스틱스를 인수하여 현지 민간물류업체 1위에 올라섰다.

금융 분야와 관련,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금융의 허브를 지향함에도 현실적으로 높은 자본금 설정 등 여러 장벽이 있어 실제로 은행업을 하는 기업 한국 금융회사는 없으나 우리은행이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다.

## ■ 우리 기업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웅진코웨이’
  - 정수기 관리 ‘코디’ 서비스 도입과 이슬람 국가 특성에 맞춘 할랄 인증 취득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입 주요 성공요인임
  - 정수기 렌탈과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던 말레이시아에 한국형 코디서비스와 렌탈서비스를 도입하여 정수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실패사례) 전국적인 영업망 확보 실패로 철수한 A사
  - 10년 전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초창기 정수기 시장에서 현지 영업사원을 모집해 방문할인 판매로 급성장함
  - 지방 3곳에 영업사무실을 둘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었으나, 서비스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이 더디고 전국적인 영업망 확보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기존 영업망에서 한국 재고를 소진하는 소극적인 영업으로 성장 정체
  - 기존 영업 조직망들이 오히려 중국 제품까지 들여와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결국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철수

## ■ 탈중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이전·확장 사례

- 회사명 : Sumitomo Rubber Industries(일본)
- 사업분야 : 니트릴 고무장갑 제조
- 세부내용
  - Sumitomo Rubber Industries는 Thin Nitril 고무장갑 생산을 위한 신규 제조라인 건립을 위해 1,400만 달러를 말레이시아 Kedah에 투자함

- 상기 제조라인은 2021년 5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제조라인은 1달에 200만개의 제품 제조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이전 사례는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 탈피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일본 경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루어졌으며, Sumitomo Rubber Industries는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 현지 수요 및 우리의 강점에 기반한 협력 가능 의제

- (말레이시아) 정부 집중추진 수요 분야인 첨단제조업 육성, 국산 자동차 브랜드 신규출시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미용용품, 가공식품 등 소비재 수요의 증가

#### < 말레이시아의 주체별 수요분야 >

구분	분야	세부내용
정부	신재생에너지	• 제11차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가 대체할 것으로 계획
	자동차/자동차 부품	• 정부는 국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차량(NxGV), 서비스로서의 차량(MaaS), 산업혁명 4.0(IR 4.0)을 중심으로 한 NAP(National Automotive Policy) 2020을 발표 (현재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은 국산 브랜드인 페로두아와 프로톤이 2017년 기준 각각 39.8%, 13.8%로 시장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
	환경설비 부품	• 수처리 인프라 확장 및 개선 수요 증가로 밸브 등 환경설비 관련 부품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업	소프트웨어	• 초고속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핀테크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정보보호, 정보보안,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분야에 공급 확대 필요성
	화장품 유통업	•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에 편승한 중국계 사칭업체의 확산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한류이미지 저하 등의 우려가 발생하여 정확한 원산지 및 제조업자 표시, 소비자에 대한 유통구조 안내 등 필요
	할랄산업	• 말레이시아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 판매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식음료 분야에서 할랄제품을 취급하려는 경향 가장 크고, 최근에는 화장품, 의약품 등 식품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수요 상승세
소비자	뷰티용품	• 한류 확산 및 소비심리 개선에 따라 뷰티용품(화장품, 헤어제품 등)의 수요 증가세
	건강보조식품	• 건강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건강보조식품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려는 추세
	가공식품	• 맛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 및 해산물, 육류, 과일, 야채 등의 간편 포장·조리식품 등의 수요 증가세 전망

- (한국) 12대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對말레이시아 협력유망성을 타진해보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한류를 활용한 연관 산업의 현지진출 추진을 노력

〈 말레이시아의 수요 대비 협력유망 산업/분야의 도출 〉

구분	산업/분야	선정 근거
경쟁우위 분야	석유화학, 화장품, 보건/의료, ICT융합, 전자부품, 기계장비, 1차 금속 제조 등	무역역량, SDGs, 통계분석 등
협력유망 분야	건설업,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교육서비스, 미용업 등	진출(협력)현황, 설문수요 등

협력 우선 분야	구분	세부 분야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차량 유지·보수제품
	ICT	클라우드, 헬스케어ICT융합, SW
	화장품, 식료품	(할랄인증)화장품, 식음료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첨단의료기기, 전통의학
	(이슬람)금융	이슬람금융, 기술금융서비스
	지식산업	교육, 인재육성, 역량개발
	에너지	신재생(태양광, 바이오매스)인프라
	환경설비	수처리인프라, 기계장비

■ 2019.3월 대한민국 정상 말레이시아 방문 시 확정된 주요 협력 분야

- 양국간 할랄 산업 협력 MOU 체결
  - 글로벌 할랄허브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말련과의 할랄 분야 협력을 통해 할랄 시장 진출 기반 확보
  - 할랄인증 및 표준개발, 할랄제품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통한 할랄시장 저변 확대 및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
- Industry 4.0 대응을 위한 산업협력 MOU 체결
  - 말련 정부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형 생산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 중으로 한국의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자동화 및 첨단산업 기술분야 협력에 관심
  - 한-말련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인적·기술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말련시장 진출기회 모색
    - \* 전기·전자, 전기차, 의료기기, 스마트 제조기술, 의료기기 등
-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협력 MOU
  - 코타키나발루 등 현지의 스마트시티 구축 수요에 연계한 한국 기술과 노하우 전수 및 수출 기회 상존
  - 국가 고위급 정례 협의를 통해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협력, 스마트 시티 개발 활동 관련 최근 정보·경험 공유 등 지속 추진

● 한-말레이시아 교통 협력 MOU

-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간의 교두보로서 교통 제반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기반 마련 필요
- 육상·해상·항공 분야를 아우르는 교통 제반 분야 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양국 산업 정보 교류 및 정례 고위급 소통 채널 구축

\* 화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지속가능성, 지능형교통시스템, 물류, 인프라 건설·관리, 국제기구(IMO, ICAO, UNECE) 등

# Ⅲ. 진출전략



### III 진출전략

▶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 발달된 인프라, 탄탄한 중산층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임. 말레이계 우대정책, 가파른 물가상승률 등 우리 기업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나, 현지 사업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기업의 성공적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b>강점 (Strength)</b>	<b>약점 (Weakne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 중심부이자 중동으로 통하는 관문</li> <li>❖ 풍부한 천연자원(석유·가스·고무·팜유)</li> <li>❖ 양호한 인프라와 탄탄한 중산층 소비시장</li> <li>❖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내수시장 규모, 노동력 부족</li> <li>❖ 정부 프로젝트 발주 지연</li> <li>❖ 낮은 생산성과 주변국 대비 높은 임금</li> <li>❖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 등 규제</li> </ul>
<b>기회 (Opportunity)</b>	<b>위협 (Threa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말FTA체결 등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 추세</li> <li>❖ 인프라·플랜트 유지보수 프로젝트 추진</li> <li>❖ 한류를 통한 소비재, 프랜차이즈 진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둔화 추세 내 경제구조조정, 격차해소 추진</li> <li>❖ 자원과 소비와 의존한 경제성장 지속</li> <li>❖ 가파른 물가상승률, 정체된 임금 상승률</li> <li>❖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li> </ul>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층 소비시장 타겟으로 프랜차이즈 진출 및 온라인 유통망 활용 한류 소비재 수출 확대</li> <li>• 소비심리 회복세를 프리미엄 제품·건강기능식 등 중고가제품 수출에 적극 활용</li> </ul>	고급소비재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선도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하는 정부 정책 및 제도 예의 주시</li> <li>•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수출기지로 선정, 진출 성공 제품 주변국으로 수출 확대</li> </ul>	말레이시아를 통한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신규건설 프로젝트 외 유지보수 프로젝트 발주 동향을 현지 파트너를 통해 주시</li> <li>•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를 많이 들여오고 있는 화교 마스터 프랜차이즈와 파트너십 구축</li> </ul>	상생의 제휴를 바탕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진출 강화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내수시장 규모, 가파른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저가 상품을 찾는 소비자를 온라인 등 새로운 채널을 활용해 공략</li> </ul>	프랜차이즈 진출을 통한 한류 정착 및 일자리 창출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 2-1. 고급 소비재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선도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달하는 중소득국가로 아세안에서 중산층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흡수
- 풍부한 천연자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구구조상 중산층이 견조하며 고급 브랜드,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말레이시아는 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고급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비중이 높음
- 가전, 자동차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Covid-19 확산 이후 주춤했으나, 2021년 9월 이후 봉쇄 조치가 완화된에 따라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이후 한국 식음료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홈쇼핑·온라인 몰 등으로 유통채널 또한 다변화되고 있음
- 현대적인 제품·최신 유행 디자인·안전 기능을 갖춘 수입 유아제품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말레이시아에 고가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은 Parkson, Isetan 등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 고급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슈퍼·쇼핑몰을 공략하고, 한류 스타 활용, 인증이나 특허 취득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COVID-19 이후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 비중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지 시장 진출 전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판매플랫폼(Shopee 등) 내 전용관 개설, 클릭당 지불(PPC) 광고 등
- (유망상품) 액세서리, 미용기기, 신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패션의류, 가전, 제과 등

## 2-2. 말레이시아를 통한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진출을 통해 20억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켓 테스트가 가능하며 특히 말레이시아에는 고소득층 중동 관광객이 많아 자연스럽게 브랜드 노출이 가능함
-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 규정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KIM) 및 진흥기관(HDC), 할랄 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할랄 환경을 갖춘 국가임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역,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세계 이슬람 경제 지표(GIEI)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8년 연속 이슬람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할랄 금융·화장품·제약 분야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

### 〈2020/2021 세계 할랄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분야	규모
할랄 금융(이슬람 금융)	28,800
할랄 식품	11,700
할랄 패션(모디스트 패션)	2,770
할랄 미디어&레크리에이션	2,220
할랄 관광	1,940
할랄 제약	940
할랄 화장품	660

자료: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20/2021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할랄은 더 이상 식품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장비, 화장품 및 세면용품 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물류, 포장, 브랜드와 마케팅, 미디어와 여행 등 서비스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할랄 시장을 주도해 가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식품, 음료, 화장품, 개인용품, 물류, 의약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시아 할랄표준(Malaysia Standards, MS)을 수립해 제시함
-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JAKIM)은 현재 46개국 84개 인증 기관과 상호 교차 인정이 됨
  - 상호 교차 인정이 될 경우 상대국에 수출 가능하며, JAKIM 인증 취득 시 46개국에 추가 인증 획득 없이 진출할 수 있음
  - 이에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및 이슬람 국가 진출의 초석으로 삼아 기타 할랄 시장으로 연계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매년 개최되는 MIHAS(말레이시아 국제할랄전시회) 참가 등 현지의 유력한 할랄 분야 행사를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가능
- (유망품목) 식품, 화장품, 세면용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장비 및 물류, 포장, 브랜드와 마케팅, 여행상품 등

〈현지에 판매 중인 한국 할랄 소비재 예시〉

제품	기업명	할랄인증	제품	기업명	할랄인증
 김자반	박향희 전통김	Jakim	 불닭볶음면	삼양	KMF
 정관장 홍삼제품	한국인삼공사	KMF	 정수기	코웨이	Jakim
 홍초	대상	KMF	 화장품	텔런트화장품	Jakim
 유자차	한성푸드	Jakim	 해산물·어묵 등	수협	- (수산가공품)

## 2-3. 상생의 제후를 바탕으로 제조업·건설업 진출 강화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노동집약형보다는 기술집약형 제조업 위주로 발달되어 있으나 경쟁국들의 성장으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이 주요 이슈로 대두됨
- 말레이시아 건설산업은 전체 GDP에서 약 4~5% 정도를 차지하며, 2020년 이후 COVID-19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회복 전망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업) 최근 제조업 분야 노동력 부족, 낮은 생산성,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제조업 혁신정책 추진
  - 글로벌 기업: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중심  
\* (전기·전자) Intel, Toshiba, Hitach, Philips 등, (석유화학) Shell, Exxon Mobil 등, (자동차) Honda, Toyota, Denso 등
  - 한국기업: 노동집약적 단순조립이 아닌 기술집약적 제조업(전기·전자, 기계·장치, 석유화학 등)과 고급소비재(화장품 등)가 주로 진출

#### 〈말레이시아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혁신 정책 (Industry 4WRD 정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Industry 4WRD(National Policy on Industry 4.0)'를 발표(2018년 10월)
- 'Industry 4WRD'의 비전은 △ 아태지역의 스마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의 전략적 파트너 △ 첨단기술 산업의 메카 △ 첨단기술 토털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도약 등
- 이를 위해 △ 노동생산성 향상 △ 제조업 확대 △ 혁신 역량 강화 △ 고급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

- (건설업)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건설회사 진출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자금력과 화교 네트워크, 가격경쟁력 등으로 경쟁이 치열
  - 주요 정부 차원의 건설업 프로젝트는 신정부 출범 이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진행됨을 감안해 한국기업이 적극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제조업) 인건비 등 제조원가 상승,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역내 경쟁국들의 추격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업계의 최대 현안은 생산성 향상임
  - 이러한 국가적 수요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제휴가 주효할 수 있음
  - 제조용 로봇,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섬세한 형태의 주물 등이 유망함
- (건설업)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각종 건설업에 필요한 특수 시공기술 및 자재 등 한국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충분하므로, 현지 로컬에이전트와 네트워크 구축 및 분야별 수요를 파악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음

## 2-4. 프랜차이즈 진출을 통한 한류 정착 및 일자리 창출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말레이시아는 ASEAN의 국민소득 상위 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와 육로로 인접해 있으며 인구 구성상 중국인, 서남아·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이 많아 프랜차이즈 진출을 통해 동·서남아 확산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
- 아울러 내수시장도 소득 향상과 관광객 소비 증가추세 등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08년 이후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산업 연간 성장률은 15%로 높은 편이었으며, 프랜차이즈 매출은 총 소매부문 매출의 약 5%에 불과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음
  - \* 선진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매출이 소매부문 매출의 약 40%를 차지
  - \*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2008년 대비 2016년도에 2배 이상 증가(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증가에 기인)
- 한류가 말레이시아인들의 생활에 자리잡아 있으며 특히 한국 식음료 프랜차이즈(치킨, BBQ, 커피·토스트 등), 테마가 있는 카페(키즈카페, VR 활용 카페 등) 등 다양화
- 아울러 아세안의 프리미엄 시장으로서 말레이시아의 위상과 아세안, 중국, 중동으로부터 관광객 방문이 많아 프랜차이즈 진출 후 확산 전략을 펴기에 최적
  - \* 2019년도 말레이시아 방문 관광객 수는 약 2,610만 명이며 상위 5개국은 싱가포르(1,016만 명), 인도네시아(362만 명), 중국(311만 명), 태국(188만 명), 브루나이(121만 명)임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반적으로 한국기업이 단독·직영 형태로 진출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나 합작을 통해 진출하는 경우가 많음
- 할랄 인증 획득 등을 통해 무슬림 고객을 함께 공략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며 중동 및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타국으로의 확장성을 위한 마켓테스트 가능
  - \* 말레이시아 진출 후 주변 시장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상표권 사전 등록이 바람직
- 쿠알라룸푸르 인근 주거/오피스 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1Utama 쇼핑몰 내 한류프랜차이즈 Zone인 한류타운 개관 참고

〈1Utama 내 한류타운 프로젝트 추진〉

- 면적 기준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로 신축 별관 내에 한류타운 조성 추진
- 개관 일정 : 2019년 연말 건물 완공 및 인가 취득, 2020년 초 영업 시작
- 면적 : 한류타운 약 4,660㎡ (별관건물은 약 55,000㎡ 규모)
- 구성(안) : LG층 식음료(약 20개 브랜드), G층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약 10개 브랜드), 1F층 엔터테인먼트(예정) 등

- (유망품목) 식음료 중 특징이 있는 품목(매운 닭갈비 등), 문화상품을 활용한 카페, VR 등 한국에 장점이 있는 기술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 등

### 3.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22년 진출 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4차 산업	① 양국 정부기관 연계를 통한 ICT·4차 산업혁명 분야 진출
제조업 4.0	②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4.0 분야 협력
전력·에너지	③ 상생의 기술협력을 통한 전력 기자재 등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
해양플랜트	④ 해양플랜트 협업 플랫폼을 활용한 현지 프로젝트 참여



**말레이시아 발전 수요에 맞춘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간 시너지 창출**

#### 3-1. 양국 정부기관 연계를 통한 ICT·4차 산업혁명 분야 진출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국 중 IT 인프라가 우수하며 정부의 ICT 산업육성 의지가 높고 ICT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신 정책이 발달해 있음
- ICT 기술의 경우 주변국으로 확산이 용이하다는 면에서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ICT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거점이 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VC를 활용한 스타트업 생태계도 발달되어 있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말레이시아는 적극적인 ICT 육성정책(Multimedia Super Corridor 정책 등)을 펴고 있음
  - 각 지방 중점도시별 특성에 맞추어 전자정부, 전자무역, 원격의료, 스마트 공장·농장·학교 등의 분야에 첨단기술을 유치하여 지방별 ICT 허브 구축을 추진
  - 정부 차원에서 주요 외국기업과 제휴하여 스마트시티, 온라인·물류 분야 혁신 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 알리바바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 Digital Free Trade Zone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
-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VC를 통해 펀딩을 받아 동남아 내에 진출하는 방안 및 동남아 내 타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해 사업 확장을 검토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ICT 분야 정부 발주 프로젝트 등의 경우에는 현지 기업체와 연계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충분히 보유한 현지 유관 분야 에이전트와 전략적 제휴 검토 필요
- 참고로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현지 ICT 분야 총괄 국가기관인 MDEC, 스타트업 육성 담당기관인 MaGIC과 제휴를 통해 한국 IT기업·혁신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현지 기관 개요〉

- ▶ MDEC(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기관 개요
  - 설립년도 : 1996년 / 설립목적 :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 구축 및 활성화
  - 주요사업
    - 말레이시아 정부의 디지털 산업/경제에 대한 입법, 정책, 표준 제정 자문
    -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Initiative 감독
- ▶ MaGIC(Malaysian Global Innovation & Creativity Centre) 기관 개요
  - 설립년도 : 2014년 / 설립목적 : 지속가능한 창의·혁신적 기업 창출 환경 조성 및 육성
  - 주요사업
    - GAP(Global Accelerator Program) : 스타트업 육성·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 Pre-Accelerator Bootcamp : 초기 스타트업 Kickstart 지원

- (유망품목) 스마트시티, 주차관리시스템, VR, 5G, 핀테크/동남아향 스타트업 분야 등

### 3-2.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4.0 분야 협력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노동집약형보다는 기술집약형 제조업 위주로 발달되어 있으나 경쟁국들의 성장으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이 주요 이슈
  - \* 기존의 천연자원 분야에 더하여 첨단 제조업 분야 진출기회 확대
- 특히 베트남, 인도 등의 부상으로 말련 정부는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첨단산업 육성에 지대한 관심(Smart Factory, ICT, 전기자동차 등)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지로 발전해나가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Smart Factory 등 Industry 4.0 분야 고도화를 추진
  - 3대 축매산업(전기·전자, 기계·장치, 화학), 2대 신성장산업(항공, 의료기기) 지정
  - 기존의 자동차, 석유화학, 직물 및 서비스 분야 고도화 추진
- 특히 말레이시아 국민 자동차 브랜드의 지분이 상당수 일본, 중국 등 외국기업으로 넘어감에 따라 차세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제3의 자국 자동차 브랜드 육성(the third national car)이 국가적인 아젠다임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공장자동화, 전기자동차 등 신분야 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통한 진출이 유력
  - 중국, 일본은 기술이전에는 인색하다는 현지 평가가 있어 한국기업의 경우 기술의 점진적인 이전 및 동반 개발 등 상생을 콘셉트로 시장 진출에 나서는 것이 필요
-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로봇 등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으나 중국산보다 높은 가격과 유지보수 등이 이슈임
  - 현지 사업 파트너를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 제공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커스터마이징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 제공 등 검토 필요
- 말레이시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 장비 도입 등 새로운 제조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는 편이나 가격에 민감함
  - 한국,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설비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산 대비 차별화 포인트 내지는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

### 3-3. 상생의 기술협력을 통한 전력 기자재 등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말레이시아는 천연자원 부국으로서 유가, 가스 및 전기 요금 등이 저렴하여 에너지 분야 인프라 사업이나 천연에너지 재가공 등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협업이 유망
  - \* 팜오일(세계 생산 2위), 천연고무(7위), 주석(17위), 원유(27위), 천연가스(15위)
-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태양광, 수력, 바이오 에너지 분야도 관심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유국인 말레이시아는 오일·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분야가 국민소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관련한 기술·제조 분야도 발달해 있음
  - 특히 발전소 건립,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각종 기술분야 협력,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핵심부품 등 분야에 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높은 편임
- 말레이시아의 5년 단위 주요 경제발전 계획인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12th Malaysia Plan 2021~2025)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관련분야 산업 발전이 아젠다로 포함되어 있는 등 국가 차원으로 육성 중임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프로젝트 베이스 진출) 한국 대기업, 한전 등 공기업 차원의 발전소 건설 등 수주건이 있을 때 동반진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 발전소 등의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 등 이슈가 있을 때 진출을 타진할 수 있음
  - 삼성엔지니어링(뽕어랑 지역 석유화학단지 건설, 2016년 수주), 현대엔지니어링(말라카종합 화력발전소, 2017년 수주), 한국전력(플라우인다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수주, 2017년)
  - 유지보수는 말레이시아의 국영 발전소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관에 사전 등록 혹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
- (한-말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진출) 현지 로컬기업을 통해서 현지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 등에 납품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기업과 긴밀한 공조를 통한 진출이 필요함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전기·전력분야 현지 협회인 TEEAM(1952년 창립, 1,800개 회원사 보유)과 긴밀한 협력하에 한국기업의 기술 도입 필요 시 현지 협회·기업 대상 상시 소개를 지원하므로 심분 활용 요망
- (유망품목) 전력기자재, 고부가가치 에너지 분야 부품·부분품 및 기술 등

### 3-4. 해양플랜트 협업 플랫폼을 활용한 현지 프로젝트 참여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해양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업황이 양호한 편이고 국영 석유기업인 PETRONAS도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경주 중으로 선진기술/설비 진출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
- 최근 COVID-19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말레이시아 석유가스에너지 시장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1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는 등 해양플랜트 분야 진출 여건은 양호한 편임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변환계획(ETP)에서 석유가스에너지 부문에서 5%대 성장을 계획하고, 관련된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적임
  - 2018~2019년도 초의 경우 정권 교체의 영향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들(특히 국영기업체 발주 프로젝트)이 진척이 더뎠으나 다시 정상화 되는 추세
-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조선기업인 Yinson, 대표적인 선사인 Bumi Armada 등은 신규 입찰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말레이시아는 현지(진출) 기업에만 허용되는 라이선스·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시장임
- 석유·가스 분야에 다국적기업이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고, 선진국 브랜드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 시장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나 API 같은 국제 규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큼
- 말레이시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를 에이전트로 임명하는 것이 필수로서 에이전트 선정 시 페트로나스 라이선스를 받은 경험이 있고 실제 납품 경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선정하는 것이 유리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수출지원센터’와 ‘한-말레이시아 오프쇼어 협의회(M-KOC)’를 적극 활용하여, 현지 시장정보 입수,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함
- (유망품목) 피팅, 플랜지, 각종 밸브 및 해양플랜트 자동화 시스템 등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b>화장품</b> 	수입액('20/US\$백만)	350	대한수입액('20/US\$백만)	51
	선정사유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수입 수요 상승세		
	시장동향	고급화장품부터 OEM, ODM까지 다양한 수입		
	경쟁동향	일본, 프랑스 등 경쟁국들을 추월		
	진출방안	현지 전시회와 한국계 홈쇼핑·온라인쇼핑몰 활용		
품목명 2	HS Code	8421.39	수입관세율(%)	0
<b>공기청정기</b> 	수입액('20/US\$백만)	169	대한수입액('20/US\$백만)	47
	선정사유	COVID-19 대유행으로 공기청정기 수요 급증		
	시장동향	효율이 높은 스마트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2020년 수입 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27.6%의 수입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진출방안	렌탈 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 판매 전략의 다변화 필요		
품목명 3	HS Code	190230 (예 : 라면)	수입관세율(%)	0%
<b>식품</b> 	수입액('20/US\$백만)	144	대한수입액('20/US\$백만)	21
	선정사유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의 관심 확대		
	시장동향	기존의 라면류 등에 추가로 떡볶이 등 다양화 추세		
	경쟁동향	수입 식품의 가격은 높은 편이나 수요는 꾸준하며, 일본 식품 등에 뒤이어 한국 식품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진출방안	전시회 등을 통한 수입상 발굴, 한국계 홈쇼핑 채널 등 활용		
품목명 4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5%
<b>자동차부품</b> 	수입액('20/US\$백만)	2,185	대한수입액('20/US\$백만)	68
	선정사유	현지의 제 3자동차 브랜드 육성책 등 기회 발생		
	시장동향	전기 등 대체연료 활용한 하이브리드 차량 등 개발 추진		
	경쟁동향	일본, 중국, 독일계 자동차 브랜드, 부품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산도 기회 모색 가능		
	진출방안	현지 자동차 부품 벤더 협력, 대기업 등록 에이전트 등 발굴		
품목명 5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b>의료기기</b> 	수입액('20/US\$백만)	802	대한수입액('19/US\$백만)	21
	선정사유	의료기기 수요 증가 및 한국산 관심 증대		
	시장동향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의료기기가 현지 진출 확대 중		
	경쟁동향	일본, 독일에 비해 가격은 낮지만 유사한 품질로 현지 시장 공략 중		
	진출방안	분야별 전문 에이전트 발굴, 병원/클리닉 대상 홍보/영업 등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 첨부 2 >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b>F&amp;B</b> <b>프랜차이즈</b> 	선정사유	식음료 분야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시장동향 및 경쟁동향	다양한 한국 프랜차이즈가 현지 진출 중이며 동남아 전체를 타깃팅하여 말레이시아 선진출이 두드러짐
	진출방안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가 일반적임. 계약 초기부터 수익분배, 운영방안 등 세세하게 정리할 필요
<b>품목명 2</b> <b>뷰티 서비스</b> 	선정사유	한국 미용제품·서비스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시장동향 및 경쟁동향	현지 스파·클리닉 등에서 한국제품 도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진출방안	한국 브랜드를 사용한 뷰티서비스 기업을 통해 한국 미용제품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유망할 것으로 판단	
<b>품목명 3</b> <b>첨단 콘텐츠</b> 	선정사유	VR, 카툰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및 경쟁동향	한국산 VR 기기(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경쟁력이 높다는 인식이 있으며 문화 콘텐츠 인기 높음	
진출방안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가 일반적임. 계약 초기부터 수익분배, 운영방안 등 세세하게 정리할 필요	
<b>품목명 4</b> <b>SW</b> 	선정사유	한국 IT 기술에 대한 신뢰도 높음
시장동향 및 경쟁동향	건설, ERP 등 일부 특정한 영역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한국산 진출이 있음	
진출방안	현지 IT 기업과 협업을 통해 말레이시아 현지 수요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하여 진출	
<b>품목명 5</b> <b>교육</b> 	선정사유	한국어 등 교육사업이 유망할 전망
시장동향 및 경쟁동향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고 현지국제학교에 취학 중인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 콘텐츠 수요 상존	
진출방안	수요가 명확한 한국어 교육, 한국인 대상 교육 등부터 시작하여 시장을 점점 확대해나갈 필요	

###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구분	분야	사업명	시기
1	할랄산업	할랄 종합 박람회(MIHAS)	5월
2	기계산업	기계산업박람회(METALTECH)	6월
3	조선해양	OGA 2022	9월
4	환경산업	IGEM 2021	10월

###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 ■ 주요 정치 경제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15대 총선	2022년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3년 예산안 발표	2022년 11월	
RCEP 협정 비준	2021년 12월	2022년 초 발효 예정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말레이시아 국제할랄전시회(MIHAS)	2022년 5월	
기계산업박람회(METALTECH)	2022년 6월	
OGA 2021	2022년 9월	
BeautyExpo 2021	2022년 9월	
IGEM 2021	2022년 10월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한국무역보험공사] 말레이시아 국별 인수방침**

신용장	무신용장
정상인수	정상인수 * 중계무역은 개별심사

\* 현 국별 인수방침은 '21.12.29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국별조사팀(02-399-7177)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content/contentViewD.do?brdUpperCode=A>)

**주요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정상인수	별도의 인수제한조치 없이 인수하는 것을 의미
개별심사	한도(인수한도, 보상한도 및 보증한도를 말함) 책정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회전문용을 원칙으로 함. (잠정한도, 자동한도 불가)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	박지호	과장	쿠알라룸푸르무역관	+60 (0)3 2117 7121	jhp@kotra.or.kr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KOTRA자료 21-230

2022

#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발행처 KOTRA

발행인 유정열

편집인 경제통상협력본부

발행일 2021년 1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06792)

전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085-6 (95320)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 2022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